韓國心理學會誌: 女性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Women
1998, Vol. 3, No. 1, 1-15

사회 경제적 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조 혜 자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경기대학교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 위기가 가정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사회-가정 관련 신문기사를 토대로 하여 조사하고, 이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가정의 실질적 소득 감소는 곧바로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소비형태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바뀌고 지출억제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한편 심리사회적으로는 해고불안 및 실직 후유증으로 알콜소비량이 증가했고, 이는 쉽게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불화와 이혼이 늘고있는 한편 가출과 자살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가정 위기 현상에 대해 사회적 제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기사내용은 남편 기 살리기 전략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가정의 위기 현상 기저에는 경제적인 이유 뿐 아니라, 가족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이분적 역할구조, 정보화 사회의 특성인 이기적 개인주의의 심화 등이 맞물려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남편 기 살리기 식의 정서적 지원은 기본적인 대처방안이 아니며, 기존의 가부장적 권력을 재강화하는 위험성이 있음이 비판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 위기라는 큰 변동을 겪으면서, 가정의 경제 및 가족의 심리적 현상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늘어나는 실직자들과 가정에서 안주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자들의 군상은 가정이 단순한 혈연 공동체로서 사랑과 정서적 유대감만으로 묶여져 있었던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가족구조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중 성별분업체계를 바탕으로, 남편은 가정 밖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며, 아내는 가정 내에서 자식을 키우고 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집안을 돌보며 소비를 책임지는 이분적인 역할구조가 주를 이룬다.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는 서구의 부부중심 가족과는 달리,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대화, 친밀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명시된 역할수행 능력에 맞추어져 있다(함인희, 1997). 즉 부인은 남편에게 경제부양자로서의 능력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가 크며, 남편은 부인의 살림살이 능력과 모성 및 자녀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이윤지, 1994). 이처럼 가족을 유지하는 기반이 부부간의 애정이나 정서적 친밀감과 같은 관계적 속성 보다는 역할수

행 능력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서구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가족 유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동은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변화 또는 조정하도록 부추기고, 이는 심리적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가정의 안정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역할변화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분화된 역할구조에 권력관계가 들어있고, 역할의 상실이 권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두가지 구조적 맥락, 즉 공식적 관계에서의 권력과 일상적 관계에서의 권력이라는 맥락에 위치지워져 있다. 공식적 권력이란 사회의 조직의 공식적 위계구조상의 위치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행사되는 권력으로, 주로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가리킨다. 일상적 권력이란 사회의 모든 부분에 모세혈관처럼 퍼져있으며, 주로 비공식적인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며, 성역할 분리에 기반한 가부장적 권력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두 권력 사이의 상대적 비중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대사회에 올수록 공식적 권력이 일상적 권력보다 더 강력하지만, 전통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일상적 권력이 공식적 권력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적 권력의 경우 남성들은 사회진출이 용이하므로, 지위의 고하는 있으나 공식적 권력이 전무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사회진출도 적을 뿐 아니라 직업을 가진 경우도 공식적 권력지위가 높은 경우는 극히 적으며 대다수의 여성들이 공식적 권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일상적 권력차원에서 보면, 공식적 권력에서의 지위고하와는 무관하게 여자가 남자보다 불리한 입장이다.

French와 Raven(1959)이 분류하는 권력기반(bases of power)이론에 따르면, 힘과 권력은 합법적 힘과 보상적 힘, 강요적 힘, 전문적 힘, 참조적 힘으로 나뉠 수 있다. 이중 합법적 힘과 보상적 힘, 강요적 힘은 지위 때문에 생기는 힘이고, 전문적 힘과 참조적 힘은 개인이 가지는 지식이나 매력 때문에 발생하는 개인적 힘이다(Raven, 1993; Yukl & Falbe, 1991). 이중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중시해 온 것은 개인의 지식이나 성격적 매력과 같은 개인적 힘이 아니라 지위적 권력이고, 지위에서 오는 보상과 강요가 힘을 발휘해 왔다.

이와 같이 역할이 강조되고, 지위가 중시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문화형태를 띠어 왔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문화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구분한다(Triandis, 1989,1990). 두 유형의 차이는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에 대한 견해 차이이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사회단위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으로 보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관계 및 그러한 관계 속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는 인간관의 차이로 이어져, 집단주의에서는 상황의존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인간관을,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상황유리적이고 개인중심적인 인간관을 갖게 된다(조긍호, 1995).

이러한 인간관의 차이는 자기표현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관계중심적 인간관에서는 개인적인 원망이나 목표의 추구는 사회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조화를 해치게 되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자기를 억제하여 양보하고 협동할 것을 강조한다. 반대로 개인중심적 인간관에서는 자기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자기주장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개인간의 경쟁과 공정한 교환을 강조한다. 또한 관계중심적 인간관에서는 사회의 안정은 그 구성요소로서의 관계의 안정에 근거한다고 보게되고, 결국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 따른 역할의 변이에 맞추어 스스로의 행위를 적합하게 조정하는데서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므로써 행위의 상황에 따른 변이가능성을 인정한다.

우리 사회와 가족은 전통적으로는 관계중심적, 집합주의적 특성을 띠고 "우리"를 강조하며, 부모라는 지위에 권위가 제공되었었지만, 점차 자녀중심주의와 입시주의의 영향으로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는 역수직 관계가 과도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출산율의 감소로 가족크기가 적어지면서,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교육에 치중하게 되고, 가족관계의 친밀성에 대한 기대는 높아져 가족관계의 불만족 내지 갈등의 심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함인희, 1997). 더우기 이러한 가족형태의 변화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역할을 감당하려는 관계중심적인 사고에 매어 있지만, 자녀들은 개인주의적 사고에 젖어들고, 이때의 개인주의는 합리성에 의한 개인주의이기 보다는 집단주의와 혼합된 이기적인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강조하지만 부모로서의 지위적 권위는 인정하지 않는 형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된 경제위기는 우리 가족구성원들의 경험을 여러 면에서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위기가 가족 관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9개의 주요 일간 신문기사들 가운데 199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IMF 경제위기와 관련된 가정문제 기사 135개를 분석하였다. 신문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적 시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기사 내용을 범주별로 묶어 본 결과, IMF의 생활변화와 관련된 기사가 18.5%, 가출, 폭력, 이혼, 자녀문제등 가정해체현상을 다룬 기사가33.3%, 실직의 극복방안을 다룬 기사가 37%, IMF에 따르는 여성 문제와 관련된 기사가 11.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방법 상의 제한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가 몰고온 현재 우리사회의 가정위기의 절박성 및 그에 대한 대처방안의 취약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었다.

영역별 분석

신문의 기사내용을 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경제위기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전반기(98년 1-5월)에는 후반기(98년 6-10월)에 비해 IMF로 인해 발생한 가정 변화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기사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이혼율이 IMF 직후 감소했다', '소비절약의 영향으로 가정이 화목해졌다', '실직을 이해하는 아내', '가정경제의 거품 제거'가 논의되었고, '남편 기살리기'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후반기로 갈수록 실직에 따르는 부정적인 영향의 기사들이 많아져 전반기보다 후반기에는 두배로 증가하였다. 이 기사들은 실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풀이 폭력과 가족의 유기, 이혼과 불화등 여성들이 당면하는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가 초기에는 이해와 각오로 대처되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가정의 위기로 확장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정은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지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논의하고자 한다.

소득감소 및 실직

IMF전후의 생활패턴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79%가 소득 감소를 경험한 반면, 현상유지는 20%, 소득 증가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류층의 경우 가구 소득이 예년의 200만-250만원대에서 150-200만원으로 떨어졌으며, 100만원 이하와 100만-150만원 대의 저소득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한겨레 98/9/16). 상위 소득계층이 단계적으로 하위계층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IMF이후 중산층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20.4%에 이르며(중앙일보 98/6/25), 스스로를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7.65% 증가했다.

수입감소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 평균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가정의 경우 전체의 58.9%가 수입이 감소했고, 평균 수입감소율이 24.9%인데 반해 월 평균소득 1백만원 이하인 가정의 경우는 89.3%가 수입이 감소했고 평균 수입감소율도 45.9%에 이르렀다(세계일보 98/5/14). 이는 중하층 이하의 소득감소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 조사에 의하면, 이 계층의 84%가 소득감소로 인해 실질적

인 고통받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여가보다는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겠다고 하며(57%), 몸이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50%를 상회하고 있다(한겨레신문, 98/9/16).

실직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98년 9월을 기준으로 볼 때 일용 노동자를 포함한 실직자 수가 이미 350만명에 달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올 1/4분기에 무직가구 비율이 8.5%에서 12.9%로 증가했는데, 이는 8가구중 1가구꼴로 가장이 실직상태인 셈이다(문화일보, 98/6/1). 이러한 실업률은 하류층에서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빈곤층 4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세대주가 실직한 경우가 25%에 이르렀고, 가족 전원이 직업이 없는 경우도 11%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겨레 98/10/22).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편의 생계담당과 여성의 가사담당이라는 이분적인 역할은 가장이 안정적으로 경제적 책임을 져 주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가족 결속력에서의 차이를 가져왔다(조은 등, 1997). 일반적으로 중상류계층의 여성들이 생계책임자로서의 남성의 독립성과 지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해, 하류계층의 여성들은 가장의 취약한 경제능력으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기 보다는 가정경제 차원에서 빈번한 갈등을 겪어왔다. 경제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줄고 하류층이 늘어나고 있음은 역할중심적 가정의 안정이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감소와 실직은 남편의 경제적 역할의 약화 내지 상실을 의미하고, 이는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합법적, 보상적 힘을 약화시키고,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비쳐질 수 있다.

소비생활의 변화

소득의 감소는 소비의 감소로 이어진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IMF이후 소비지출은 작년 동기에 비해 8.8% 감소했다(문화, 98/6/9). 소비생활에서 제일 먼저 줄인 것은 외식비(21.8%), 의복구입비(19.8%), 에너지비(14.8%), 문화레저비(11.0%) 순이었고, 줄이기 어려운 것으로 식료품비(36.1%), 경조사비(15.7%), 저축비(14.2%), 자녀과외비(13.1%)가 꼽혔다. 이와 함께 주부들의 소비가 절약형으로 바뀌면서 주부들은 소비생활에서 수선 및 재활용하거나(96.7%), 중고품을 사거나(82.0%), 리필제품을 구입하였다(95.7%)(세계일보 98/5/14). 같은 맥락에서 값이 싼 물건을 찾아 원정쇼핑에 나서는 주부들도 급증(75.9%)하고 있다(문화일보, 98/2/6).

이러한 절약적인 소비형태는 급작스런 경제성장 속에서 방만하고 무절제했던 소비행태가 합리적 소비로 옮아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신한종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도 가족중시, 본질지향, 안정희구, 자기실현이란 새로운 소비형태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90년대 초반 거품경제의 붕괴를 경험하면서 과시적인 '여피' 문화가 급격히 퇴조하고 절제와 실용주의, 가족주의가 탈거품시대의 새로운 사회문화적 조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가정의 줄어든 경제적 원천은 현명하게 가계를 운용하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전에는 가정경제와 관련된 부부의 권력관계에서 남편의 경제력이 주는 보상적 힘이 강했다면, 이제는 아내가 정보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살림을 하는 정보적 힘이나 전문적 힘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즉 아내의 합리적 소비가 가정경제를 살리는데 더 효과적인 방략이 된 것이다.

그러나 중하류 계층의 소비형태 상의 변화는 합리적 소비의 관점과는 다른 시각에서 조망되어져야 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조사대상 775가구중 64%가 식료품비마저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 전체가구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최저 생계비 21만원 이하의 가계 지출을 하는 가구가 12.6%에 이르고 있고, 결식하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IMF위기가 우리 사회의 중하류계층에게서는 생존의 위기 그 자체임을 의미한다. 이들은 최하위 수준의 욕구마저

충족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불안과 공포

정부가 제시한 30%회생, 70% 회생론의 맥락과 관련하여(동아 98/1/17), 주변의 동료, 친척, 친구들의 실직상황을 보면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자신들도 정리해고의 대상일 수 있다는 불안에 처해 있다. 30% 회생논리는 가장의 평생고용개념을 바탕으로 가정과 직장으로 성별분업화되어 있던 우리현실에 큰 혼란을 야기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실직불안 내지는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의 전화' 상담내용을 보면, 실업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문제로 고민하는 사례가 16.4%에 달해 실직의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동아 98/1/5). 더구나 상당수의 회사원들은 해직 공포 뿐 아니라 회사가 부도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등, 내환외우가 겹쳐진 상황이다. 이러한 직장 분위기 속에서 사내에는 억측과 유언비어가 떠돌고,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음해하며, 떠나는 동료에 대한 동정조차 말라 가고 있다(경향 98/3/9).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삶의 목표와 인간다움에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여 서로를 경쟁자 내지는 적대자로 경계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경제적 불안에서 기인된 상호간의 신뢰상실이 인간관계를 변질시키면서 심리적 공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실직의 불안 및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상 일단 실직을 하고 나면 재취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올 1월에서 8월까지의 실업 특징을 보면, 실업자 10명당 7명은 한달 뒤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1명은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취업한 2명의 경우도 안정된 직업은 극히 드물어, 75%가 임시, 일용직을 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취약하여, 실업자에게 안전망의 역할을 거의 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 실직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다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실직대책도 준비되어 있는 형편이 아니다. 실제로 연소득액 이상의 저축을 보유한 직장인은 14%에 불과하며, 개인의 저축액이 연소득의 30%미만인 사람이 48% 에 이른다. 이는 실직시 저축을 털어 생계비로 충당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직장인들의 1/3 정도가 부채규모가 연소득의 50%를 넘고 있어서, 부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1-2개월도 버티기 어렵다(한국 98/10/28). 그렇다고 성역할 분업으로 인해 가장중심의 경제 위계질서에 철저히 길들여진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구조 속에서는 가장이 맡아 왔던 역할을 가장 이외의 다른 가족구성원에게서 기대하기도 거의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가장의 실직은 가장 개인은 물론 가족성원 전체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로 이어지게 된다.

알콜과 가정폭력

IMF 한파로 실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알콜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 한파로 직장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술로 아픔을 달래면서 술 소비량도 급증했다. 올 1, 2월의 소주 판매량이 전년도에 비해 18.4% 증가했으며, 1-3월 중 막걸리 출고량도 서울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9.9% 증가했다. 상담기관과 치료소에도 알콜중독 입원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알콜관련 상담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한 병원 통계에 의하면 입원환자중 20%가 부도·실직 때문에 알콜중독에 빠진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알콜중독에 관한 상담건수도 올들어 지난해보다 월평균 30-50% 정도 증가했다(중앙 98/4/27).

알콜중독자 상담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만 해도 하루평균 20-30건에 불과하던 상담건수가 50-60건으로 늘었고, 대량감원 공포와 회사 부도로

알콜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상담전화가 급증했다. 알콜 중독자 중에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으나 이제는 버릇이 돼 마시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 실직자들이 알콜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경제력 상실로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즉 실직에 따르는 가족내의 권력상실이 무시로 지각되고 이것이 음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알콜은 실직자를 일시적으로 진정시켜 주기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기 보다는 오히려 가정폭력 등으로 이어져 가정을 위협한다.

서울 가정생활상담소에 따르면 하루 20여건의 상담전화 가운데 5-6건이 술로 인한 가정폭력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도 예년의 가벼운 폭력과는 달리 최근에는 실직한 가장의 분풀이식 폭력이 많다. 실직한 남편의 폭력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은 아내들의 상담전화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이는 실직한 남편을 이해하던 아내도 실직이 장기화되면서 매우 날카로워짐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 여성의 전화'의 사례분석에 따르면, 올 1/4분기 전체 상담사례(1730건) 중 가정폭력이 31%(536건)로 가장 높았고, 폭력의 횟수도 늘고 그 정도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구타 이유는 '직장을 잃은 것이 아내 탓', '다른 집 부인처럼 돈을 벌어 오라' 는 식의 경제적인 것과, '왜 웃는 얼굴을 짓지 않느냐', '왜 무시하느냐' 는 식의 편집증 때문인 사례들도 있었다. "IMF후 구타가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는 내용은 경제 위기로 인해 가정폭력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남편들이 합법적, 보상적 힘이 없는 상태에서 IMF경제난을 자신의 구타에 대한 합리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이렇게 경제위기를 핑계로 이루어지는 완력을 통한 힘의 행사는 대개가 구타 한가지로 나타나지 않고, 구타와 함께 외도, 도박, 의처증, 알콜중독 등이 겹쳐 나타난다는데 (서울, 98/10/2)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결국 사회적 지위의 박탈에서 오는 역할상실에 대한 남편의 분노와 저항이 아내를 희생양으로 하여 일탈행동으로 번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불화와 이혼 및 가출

일반적으로 가장의 실직은 보조적 경제원이 없는 경우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게 된다. 가족은 혈연공동체인 동시에 경제 공동체이다. 따라서 실업자 1백만명이라는 말은 곧 1백만 가정의 파탄의 가능성과 이어진다. 경제능력과 아버지의 힘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의 권위가 주로 경제적 역할에서 비롯되었던 우리 사회의 현실로서는 가족을 먹여 살릴 경제적 능력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곧 팽(烹) 돼버리는 한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 사실상 가족 문제란 경제위기에 의해서만 발생하기 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기존에 내재해 있던 문제가 표출되는 것이기 쉽다. 이 점에서 가정불화, 이혼, 가출등으로 나타나는 IMF 가정위기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역기능이 경제적 차원과 맞물리면서 증폭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생명의 전화'의 분석에 따르면, 생활고에 따른 좌절감과 가정불화를 호소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경제난에 따른 가정불화의 해결방법을 문의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남성의 전화'에 의하면, 실직 초기에는 위로해주던 가족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무시한다고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한다. '아버지의 전화'의 상담내용도 최근에는 실직 부도등 경제문제로 인한 가정갈등이 대부분이며(70%), 그 내용은 남편 실직후의 아내의 가출, 또는 이혼 요구 등이다. 이런 유형의 가정불화와 관련된 상담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가정불화는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화된다.

생계를 담당하던 남편이 실직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동적이 될 때, 이는 불화를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가정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Heavey, Layne 및 Christensen(1993)은 남편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회피하는 철수행동은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이 상황에서 여성이 성고정화된 여성 역할인 표현성, 친교성차원에서의 '남편 기살리기' 위로하기 등의 소극적인 대처만을 한다면 초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다.

따라서 최근에 와서는 남편의 실직으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나서는 여성이 상당수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여성이 취업을 한다해도 가정을 결속시키지 못하고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실상 전통적인 성역할을 담당해 왔던 부부인 경우, 남편 실직이후 아내가 바깥일을 시작하고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 가사노동을 맡는 과정에서 가정 불화가 싹트기 쉽다. 생계를 담당하게 된 아내들은 남편에게 역할변화를 요구할 수 있고, 남편은 이러한 변화요구를 가부장권위에의 도전이나 가족 내에서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도시빈민계층의 경우,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상당부분 떠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은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가 중산층에 비해 더 강하여, 아내를 도와주기 보다는 가정폭력을 일으키고 있다.

결국 어느경우든 남편의 실직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불화로 연결되기 쉽고, 이는 이혼과 가출로 이어지고 있다. '행복의 전화'가 지난 1월부터 7개월 간 개별면담한 자료에 의하면 가족문제 상담건수가 전체의 28.5%를 차지했으며, 그중 남편가출(59%), 부인가출(23.7%), 자녀가출(12.3%) 등 가족 성원의 가출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생명의 전화'에서도 IMF 이후 경제위기와 관련된 배우자의 가출에서 오는 가족 문제가 전체 상담건수의 3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력에 주로 의지해 온 하류층의 경우 노숙하는 홈리스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노숙자중 74%가 가족에게 미안해서 귀가 의사가 없거나 아예 돌아갈 집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경향 98/8/4).

한편 가출은 남성만의 일은 아니다. 가출한 어머니들이 지난해에만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대부분은 30대 여성으로,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을 못 참거나, 빚 때문에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 보건 복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여성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의 증가추세가 올들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는 가정해체현상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겨레 98/10/9).

역할수행 능력에 의존한 가부장적 가정형태에서 가장의 실직으로 상호적 역할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역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가정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 살

IMF체제 이후의 대량 실직사태는 가정불화를 넘어서, '아노미형 자살' 을 광범위하게 불러오고 있다. 실직 가장을 대상으로한 실직, 해고후의 불안심리 검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는 실직사실을 친지나 친구들이 알까 두렵고, 31%는 가정생활이 귀찮고 아내와 눈맞추기 조차 싫어졌으며, 44%는 매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다고 했다(경향 98/9/15). 이렇듯 실직은 심리적 무력감을 낳으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대화를 단절시키면서 심리적 건강 악화와 자살충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직한 아버지들의 모임'의 조사결과, 실직자의 32%가 때때로 자살을 생각한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이유로 22%가 아내의 가출과 이혼,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들고 있다. '사랑의 전화'에 따르면, 자살충동 상담자들 대부분이 정리해고나 실직, 부도를 겪은 30-40대 가장들과 그 가족들로, 상담을 해 온 실직자들 중 놀랍게도 70-

80%가 자살계획을 털어놓고 있었다. 생명의 전화에서도 지난해 12월 이후 상담한 147건의 상담전화중 120건 이상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죽고 싶다'거나 '마지막 죽기전에 할 말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중엔 "극약을 머리맡에 두고 유언삼아 전화걸었다"는 급박한 상황도 드물지 않았다.

이같은 자살충동이 실직자들 뿐 아니라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까지 전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랑의 전화'가 서울시내 직장인 45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6%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과 '삶의 공허함' 을 꼽은 경우가 각각 21%로 가장 많았으며, 17%는 'IMF사태이후 자살충동을 더 강하게 느낀다' 고 답했다. 주변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직장인도 83%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자살충동에 빠져있는 남편은 아내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안과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서울시내 경찰서에 접수된 바에 의하면 올해 생활고 및 취업난으로 인한 자살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정도 증가하였다(국민 98/3/3). 심지어 가정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보험을 들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올 상반기 보험 가입자 자살수는 6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살은 심한 스트레스나 심리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하나의 대처양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특성으로는 충동성, 공격성, 절망감 및 완벽에의 추구를 들 수 있으며, 인지적 특성에는 융통성이 결여되고 사회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려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수의 IMF형 자살은 충동성이 높거나 반대로 완벽주의 경향이 높은 개인들이 사회경제적 위기감을 경험하면서 택하기 쉬운 일종의 감정주도적인 대처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근래 실직한 가정의 동반자살 사례의 증가는 이러한 맥락과 관련지워 설명될 수 있다.

대안탐색 및 비판

사회정서적 지원

IMF 한파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의 속앓이와 아내의 한숨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의 80% 정도가 실업이나 파산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실직은 남의 일이 아닌, 언제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 되어 버렸다. 실직을 당하지 않은 가정들도 급여삭감과 물가상승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간 당연시 되어왔던 가장 역할의 막중함을 재인식하는 동시에 경제적 안정이 가족유지의 기본축이었다는 기정 사실을 새삼 주목하게 되었다. 물론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반드시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성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내자는데 뜻을 합치는 가정의 경우는 생활수준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가족간 유대가 강화되기도 한다. 또한 가장이 외식이나 음주를 자제하고, 귀가시간이 빨라지면서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늘어나고, 가정생활이 단란해졌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삼성중공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활변화를 조사한 결과, 휴일에 '가족과 함께 보낸다' 는 응답이 IMF이전 6%에서 25%로 급증했으며, 'TV를 시청한다' 도 12%에서 28%로 늘어났다. 이는 가장이 용돈을 줄이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SK생명이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IMF시대의 아내의 자화상' 이란 설문조사에서도 IMF이후 부부애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주부는 3%에 불과한 반면, 더 깊어졌다고 반응한 비율은 21%였다. 남편의 가정에 대한 충실도에 있어서도 '상승했다' 가 23%로, '하락했다'는 응답(6%)보다 높게 나타났다(서

울 98/4/8).

실업불안에 떠는 남편을 격려하기 위해 "여보, 힘내세요"라는 편지를 몰래 넣어준 아내,
해직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남편을 업어주고 싶다는 아내, 해직으로부터 안전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졌다는 자녀 등의 흐뭇한 사례도 적지 않다(경향 98/1/17). 가족은 위기를 진정으로 함께 나누는 운명공동체일 수 있다. 흔들리는 가장에게 가족은 큰 힘이 될 수 있다. 남편들이 고충을 아내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로 대부분이 "아내에게 못난 남편으로 보이거나 아내에게까지 고민을 주고 싶지 않아서"를 꼽고 있다. 특히 실직위기의 남편에게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효과가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우울증의 증세를 감소시키며, 정신과적 질병확률을 낮추고,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존감과 통정감의 유지에 도움을 주며, 실직의 경우에도 우울의 정도를 낮춤을 지적한다(김명언 등, 1998; Gore, 1978). 따라서 평소 가족간에 화목하고 대화가 있던 가정의 경우는 경제위기시에 서로를 지원하면서 대처능력을 갖게 된다. 이들에게서는 가족이 괴로움을 상의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지처가 되기 때문이다 (조선 98/6/29).

그러나 IMF 이후의 이러한 가족 내의 긍정적 변화를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어렵다. IMF에 의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의 지원효과가 얼마나 지속적일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하에서 사회적 지지는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제 곤란은 사회적 지지를 감퇴시킨다고 한다(이훈구, 1998). 사실상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가정은 대부분 실직을 당하지 않았거나 경제력이 튼튼한 가정이다. 실직을 당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 주변의 실직상황을 보면서 상대적 안도감이 가족의 결속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가장이 실직을 했더라도 재취업의 가능성이 있거나 경제적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가족화목이 유지될 수 있다.

한편 가장의 실직을 보면서 가족들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과거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던가를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면서 실직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실직한 가장을 위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경향 98/1/17).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실직 후 2, 3개월 정도 유지되다가, 3, 4개월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부터는 가족 결속력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평소에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대화가 없었던 가정일수록 실직후 3, 4 개월 즈음에 나타날 수 있는 가정해체의 고비가 더 위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동아 98/5/4). 한계 상황에 부딪치면 일상 속에 잠복해 있던 각 가정의 내적 충실도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로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 가정에서는 상반된 적응형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즉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이념만 강했지 평소 가족간의 상호관계가 긴밀하지 못했던 가정은 한계상황에 부딪치면서 해체위기를 맞게 되는데 반해 부부간 평등도가 높았던 가정은 가장의 위기상황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커지면서 가족해체의 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IMF 이후 가정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과거의 가족 친밀도 수준, 현실적 경제력, 미래 전망 등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서 낙관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더구나 이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라는 외적 쟁점에 대한 가정내부로부터의 대처방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처방식의 긍정성이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자칫 기존의 가부장적 권력을 재강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스럽기조차 하다.

가부장적 사회란 사회적 권력자원과 개인적 권력자원의 분배가 성별을 축으로 하여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Mann(1986)에 의하면

사회적 권력구조는 사회체계(social system), 조직(organization), 상황(situation) 등 세 수준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권력구조상 가부장적 성격을 띤 사회일수록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통제가 가능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여성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의 남녀의 위상이라는 주제에 적용시켜 본다면 사회체계적 권력구조상 부의 분배나 권력 및 권위의 분배 등에서 특권적 계층은 남성집단이다. 또한 구체적인 조직 수준의 권력구조상으로도 결정권과 통솔권을 지닌 상위직은 현실적으로 남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해 상황적 권력구조는 권력관계 당사자들 간의 이해와 동기에 따라 그 관계특성이 다양하고 가변적으로 형성된다. 다시말해 상황적 권력구조는 주로 공식적 장에서 기능하는 사회체계적 권력구조나 조직적 권력구조에 비해 매우 다중적이고 다원적이다. 상황적 권력관계에서는 부, 권력, 지위, 배경 등의 사회적 권력자원 외에 성품, 완력, 외모 등의 개인적 권력자원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체적 상황특성에 따라 때로는 여성이 지닌 권력자원이 남성의 것보다 우세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개인들이 독자적으로 지닌 권력자원 이외에 체계적, 조직적 권력배경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상황적 권력구조 또한 가부장적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가족관계에서도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개인적 권력들간의 역동적 힘겨루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때 개인이 지닌 체계적, 조직적 권력구조는 그 자체가 개별 행위자에게 권력자원의 구실을 하게 됨으로서 현실적으로 가족관계에서도 여전히 남성들이 권력화에 유리하게 된다.

그렇다고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사회적, 조직적 권력구조가 모든 일상적 권력관계 구석구석까지를 전적으로 지배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에서조차도 여성의 권력을 논할 수 있는 틈새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부 현상을 확대해석하여 '우리 나라만큼 여권이 센 나라가 없다'고 남성들이 항변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외적 상황으로, 일반적인 가족관계라고 일반화시켜 주장할 수 없다. 뿐 만 아니라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이미 암묵적으로 가부장적 논리에 의해서 사전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는 IMF이후 여성들을 향해 사회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일련의 설득적 조언들의 소극성과 비현실성 및 그 밑에 깔려있는 무력감을 분석해보더라도 즉각적으로 간파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손쉽게 장려되고 있는 IMF 대처 가족전략이란 기존의 여성억압적 이데올로기의 또다른 판본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Barrett과 McIntosh(1982)에 의하더라도 가족이란 친족구조이고, 감정적 연대의 단위인 동시에 경제적 단위이며, 그리고 이 모든 형태를 뛰어넘는 이데올로기적인 형태이다. 즉 가족은 애정과 합의를 기반으로 한 단순 구성체이기보다는 일련의 사회관계로 형성된 사회구조들의 복합 구성체이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가정 역시 가족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불평등이 개재할 수 밖에 없는 또하나의 '생산과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투쟁의 장'으로서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 곳으로, 가족 내의 역할은 권력의 불평등을 연습시킨다. 결국 가족개념이란 결코 시대적,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역사적 구성개념이며, 따라서 남편의 안식처나 휴식의 공간으로서의 가정에 대한 이상화야말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의의 쟁점을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또하나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가족 개념을 여성특유의 이타성, 모성성으로 포장하여 가정을 여성의 존립자체를 가늠해주는 절대적 기반으로 내재화시키고 있다. 이 점에서 IMF 이후 확산되고 있는 '남편 기살리기 증후군'은 이러한 여성억압적 이데올로기하에서 출발된 사회현상의

하나로 풀이될 수 있다.

경제위기는 경제해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내의 정서적 지지에 의한 남편 기살리기보다는 아내의 경제적 대처능력이 더욱 중요한 변수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의 인권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력 확보가 일차적으로 전제되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에 의한 경제적 우위와 독점이 사라짐으로써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 역시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 이 또한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이다. 근래에 실직한 남편을 대신해 가정경제를 떠맡고 생활전선에 나간 아내들이 종종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을 보더라도 남녀불평등은 단순히 경제력에서의 차이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험프리즈(1990)에 의하더라도 가족과 경제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분석상 대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여성의 불평등이나 억압의 문제를 경제적 측면으로 설명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힘의 균형

인간은 권력에의 의지를 가진 존재로, 사회적인 지위와 관련된 공식적 권력과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일상적 권력을 추구한다. 권력의 특성상 공식적 권력과 일상적 권력 사이에 괴리가 있을 경우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를 상대적인 무권력으로 인지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려고 한다. 특히 우리와 같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보아 출세하거나 성공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할 남성이 성공에의 부담이 더욱 크므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여 공식적 권력이 적은 경우 이용가능한 다른 채널, 즉 일상적 권력을 통해 이를 보상받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한쪽의 무권력을 다른쪽의 권력으로 보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때 이의 보상을 추구하는 행위가 더욱 강하게 표출되기 쉽다.

이러한 논리를 가족내 문제에 적용해 보면, 일상적 권력에서는 유리한 남성들이 공식적 권력은 적거나 없을 경우 자신의 상대적 무권력을 보상받기 위해서 일상적 권력에서 자신보다 무력한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점이 IMF이후 남편에 의한 아내폭행을 단순히 남편 개인의 특성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근래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은 본래적인 남녀간의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상의 특성으로부터 그 원인을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남성의 실직은 경제력의 상실이자 대부분의 경우 공식적 권력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보상심리가 자칫 일상적 권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에 대한 횡포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특성상 여성이 남성에 대한 의존이 높을수록 그리고 그러한 여성의 의존을 남성이 책임지기 어렵게 될수록 폭력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그 결과 가정내에서 남편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축소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남성들은 이를 위협적 현실로서 과민반응하며 충동적인 '반동현상'으로 표출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내의 비가시적인 권력구조상에서의 부부간 비대칭적인 권력관계 특성은 접어두고 현실적으로는 가장이라는 남편의 가족통솔권과 가족은 사적인 영역이라는 사회적 통념하에 가족폭력조차 종종 은폐되어지곤 한다.

이런 측면에서 IMF로 인한 부부갈등 문제는 단순한 경제진단이나 애정처방을 넘어선 가족 내의성 권력관계에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 외적으로는 평등주의적 가치가 수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인간관계, 특히 가정내 관계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가 지배적이다. 특히 남성중심의 권위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담당자라는 성별분업 논리를 고착화시키면서, 여성의 주역할을 가정내로 제한함으로써 여성을 경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여성의 역할에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이 뒤따르지 못하는 사회구조상 여성은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끔 예속화되기 마련이다. 주부를 노는 사람 내지는 무직자로 보는 사회적 규정은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는 물론 가족 내에서조차 당당한 위치에 머물지 못함게 함으로써 여성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자기비하감에 빠뜨리기 쉽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가정이란 종종 평등과 정의가 끼어들 수 없는 곳으로 성역화(?)되어 여성의 희생과 경제적 불평등이 당연시됨으로써, 아이로니칼하게도 공적 영역에서는 엄연히 정의롭지못한 행위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는 곧잘 정당화되거나 심지어 미화되어 권장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적/사적 영역, 가족/사회라는 이분법하에 가족관계를 신비화하고 가정을 성역화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차별, 억압 및 경제적 종속을 지속시키기 위한 남성중심의 논리일 수 있다.

남녀간 권력관계가 불평등한 이상 여성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남자와 여자가 기본적으로 다른 권력위치에 있다면 이러한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권력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IMF로 인한 가정위기의 한 타결책으로 추상적인 가족화목 해법을 제안하는 것은 결코 현실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IMF와 관련된 가정위기의 핵심이 경제위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대책도 공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편/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부양의 책임을 지며, 아내/어머니는 가족구성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정서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분법이야말로 남녀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한 핵심논리이다. 이 기회에 가정의 사회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가 가족문제의 사회적 측면을 은폐 내지 약화시켜왔을 뿐 아니라 여성을 가족내 역할에 묶어둠으로써 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여성의 잠재능력 자체를 무력화시켜온 근원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주장되기 쉬운 가족개념 자체가 갈등하는 사회적 조건들의 변동과정 속에서 구조화된 산물이라면, 가족문제 역시 남녀간의 힘의 균형을 지향하는 방향에로의 해법이 요구된다.

맺는말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지향의 주요 특징으로 인본주의, 권위주의, 집합주의를 들 수 있다(임희섭, 1994).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가치는 근대화 과정을 통해 물질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로 변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전형적인 서구식 개인주의라기보다는 경제논리와 합쳐진 '이기적'인 개인주의인 동시에 집합주의와 합쳐진 '혼합적' 개인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물질주의적 가치지향은 매우 뚜렷하여, 특히 IMF 위기를 맞으면서 '물질적 성공과 출세'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제차원이란 사회현상에 대한 일차적 설명력을 갖는 중심축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가정의 울타리 안일지라도 경제논리에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위기를 단순히 경제 해법으로 풀려는 것은 마치 남편의 기살리기로 자정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만큼이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 문제나 부부갈등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겪게되는 시대적인 변화라는 맥락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의 사회관습상 남자의 실직이라는 것은 '직분적 존재'로서의 인간존엄 자체에 대한 일차적 위협이자 가장일 경우 가족구성원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절명의 위기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의 우리의 가까운 이웃 가정들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분풀이식 가정폭력, 무책임한 가출, 병적인 가족학

대 등 반인륜적 행태들을 접하며, 기본적인 인륜성 내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공동체정신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현상들을 단순히 경제악화나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비하감에다 그 원인을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와 이성을 축으로 구성되는 개인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화 사회란 지식중심의 사회로서 미래지향적인 인간이성의 완숙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환상적인 미래상과는 달리 부정적으로 본다면 정보화 사회란 끊임없이 무언가 가치있는 정보거리를 찾아 무한경쟁을 불사하게 하는 추동력을 지닌 불확정의 사회이다. 즉 정보화 사회는 사람들에게 적응을 위한 새로운 변신을 요구하며, 이러한 변화요구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성공확률보다는 실패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개인의 심리내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정보화 사회는 개인주의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사회적 인간관계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며, 심지어 부모-자녀 관계마저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IMF로 인한 갖가지 가정문제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준비(?)되어졌던 현실일 수 있다. 이는 정보화 사회의 속성상 안으로 곪아가고 있었던 측면, 다시 말해 비인간화의 가속화로 인한 도덕성 상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존엄성을 비웃듯이 IMF이후 빈번해진 즉각적이고, 반사적이고, 충동적인 행태들은 개인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조건의 반영이기도 하다. 사실상 정보화 사회는 그 내재적 속성상 갈등, 스트레스, 실패감 등의 완충에 기여하는 정서 및 인성의 발달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의 인간심리변화를 초래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좌절과 상처는 증가하는데 이를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는 경험은 축소되는 사회적 환경이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정보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인간소외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이 점에서 정보화 사회란 자체 문법상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는 구조이다.

오늘날 갖가지 IMF 증후군이란 단순히 경제적 좌절에서 기인된 개인의 부적응상의 문제를 넘어선 정보화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집단 병리현상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맥락을 간과한채 우리 사회가 이제 또다시 IMF로 인한 가정위기 탈출해법을 여성특유의 이타성 내지 모성성에서 찾으려한다는 것은 또하나의 우를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본래 의미대로의 이타성과 배려성의 참뜻을 되살리려내기 위해서도 가족간의 정서적 지지라는 덕목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소중한 가치로 내재화되어야 할 것이며 '정의'의 논리 또한 공적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자리매김해나가야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결과에서 IMF 관련 신문기사들의 논지가 점차 아내의 정서적 지지 강조로부터 부부간 대화의 권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의 IMF위기를 가정에 갇히워왔던 '여성성의 사회에로의 확장'의 한 계기로 삼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위기탈출을 향한 보다 적극적인 출발점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언, 노연희(1998). 실직자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화 반응 및 대처활동. **한국 심리학회 1998년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박영진, 박유문, 석재호(1988). 자살에 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예비적 조사. **신경정신의학**, 28(1), 155-164.

심영희(1996). 권력, 성: 몸의 권리와 성관련 법의 개선안, 조형(편), **양성 평등과 한국 법체계**. 이화여대 출판부.

원호택(1987). 한국인의 자살에 관한 심리사회적 이해. **현대사회**, 26, 현대사회 연구소, 66-89.

이재경(1997). 정의의 관점에서 본 가족, 강선미 외 (저), **가족철학**. 이화여대 출판부.

이윤지(1994). **부부간 우애성에 대한 기대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미간행 이화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훈구(1998). 경지위기의 심리적 표출. **학술심포지엄 발표논문집**.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이훈구, 이혜주(1998). 한국 실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 1998년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 출판.

정현백(1998). 한국 여성의 현실과 페미니즘이론. 박정호(편), **지식의 세계. 1. 사회와 역사**. 동녘.

조긍호(1995). 문화와 인지: 타인이해의 연구를 중심으로. **심리학연구의 통합적 탐색**(한국심리학회 동계 심리학 연구 세미나 초록). 한국 심리학회

조은, 이정옥, 조주현(1997). **근대 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대 출판부.

함인희(1997). 한국여성의 가족주기와 역할의 변화. **현대 한국 사회의 변화와 여성** (한국 여성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학술대회 초록).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험프리즈(1990). 가족의 기원: 넉넉함이 아니라 모자람. 이정원(역), **여성의 노동, 여성의 삶, 엥겔스 그후 100년**. 천지.

Barrett, M. & McIntosh, M.(1982). *Anti-social family*. London: Verso.

Fiske, S. & Taylor, M.(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Y: McGraw-Hill.

French, J. & Raven, B.(1959). The bases of social power. In D. Cartwright(Ed.), *Studies in social power*(pp.150-167).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Gore, S.(1978). Models of stress and meanings of unemployment: Reactions to jobloss among technical profession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4, 13-21.

Heavey, C., Layne, C., & Christensen, A.(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16-27.

Johnson, P.(1976). Women and power: Toward a theory of effectiveness. *Journal of Social Issues*, 32(3), 99-110.

Raven, B.(1993). The bases of power: Origins and recent developments. *Journal of Social Issues*, 49(4), 227-251.

Triandis, H.(1989). The self and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Triandis, H.(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Berman(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Lincoln, NB: Univ. of Nebraska Press.

Kvale, S.(Ed.)(1992). *Psychology and postmodernism*. London: Sage.

Mann, M.(1986). *The sources of social power, Vol. 1: A history of power from the beginning to A.D. 1760*.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rker, I. & Shotter, J.(1990). *Deconstructing social psychology*. London & NY: Routledge.

Yukl, G. & Falbe, C.(1991). Importance of different power sources in downward and lateral rel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3), 416-423.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Women
1998, Vol. 3, No. 1, 1-15

The Effect of IMF Economic Crisis on Korean Family

Hyeja Cho
Ewha womans University

Heejeong Bang
Kyonggi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changes of Korean family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were analyzed from a feminist perspective. Many Korean families have experienced decreased income and diminished economic status. Many fell down from middle class status into middle-lower or lower class. And many families have shown anxiety of possible unemployment, many couples underwent the increased alcohol use and domestic troubles from which helped them to end with divorce and to leave home. We discussed that the economic crisis was not the only reason for the family troubles, that there were other factors which are deformed power relationships among family members, divided roles, and individualization and de-humanization of information society. We criticized that social movement of 'encouraging husband's energy' would not be the solution of family crisis. And we proposed that feminine characteristics such as altruism and caring would be the sustaining power which women and men should have in this crisis, and principle of justice should exist not only in society but also in home situation.